기적과 전도 **(Miracles and Evangelism)**

- 일시**:** 2026년 10월 18일
- 본문 성경**:** 사도행전 4:1–37

1. 배경**:** 예루살렘의 큰 사건과 지도층의 위기감 **(**행 **4:1–4)**

- 복음의 폭발적 확산**:** 나면서 못 걷게 된 앉은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일어선 일은 예루살렘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천 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대적**:** 유대 종교 지도층(제사장, 사두개인 등)은 예수의 부활과 치유의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도들을 붙잡아 심문하였습니다.

2.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 **(**행 **4:5–12)**

-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늘나라)'를 의미하며, 세상이 버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기초이자 중심이 되셨음을 천명했습니다.
- 유일한 구원의 길**:**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3. 말씀**(**언약**)**으로 사건을 해석한 제자들의 기도 **(**행 **4:13–31)**

-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치유받은 사람이 곁에 서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지도층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의 기도**:** 위협 속에 풀려난 사도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제자들의 모임 처소)으로 돌아가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 시편 **2**편의 성취 확인**:** 제자들은 다윗의 시편 **2**편("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을 인용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핍박의 상황조차 우연이 아니며,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는 언약의 성취임을 고백했습니다.

4.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 기적과 말씀 성취의 이해

-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는 자**:**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 두 가지 핵심 증거**:**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앉은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과 핍박의 현장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영적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 기적과 전도의 관계**:** 제자들은 기적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전도 사역의 중요한 문이자 발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에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5. 말씀 선포와 부활의 증언 **(**행 **4:32–37)**

-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친히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 초대교회의 하나 됨과 은혜**:** 32절처럼 모든 성도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회복은 이전 교회사에 유례없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 전도의 핵심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당시 전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참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6. 결론 및 적용

-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전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누리며, 그 이름을 담대히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 초대교회와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적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집중하여 현장에 완전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